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교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연구: Q방법론 적용

A Study used Q-methodology on the Subjective Cognition-Patterns of School Aged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Function to the School

이금진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복지학과

Keum Jin Lee(lkj626@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적용하여 '학교'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Q표본은 학계 및 현장전문가 4인, 경계선 지능 아동 4인에 대한 심층면접과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21개를 선정하였고, P표본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계선 지능 아동 총 18명의 학부모와 본인의 동의를 거쳐 표집하였다. P표본은 5점 척도의 정규분포로 Q분류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는 Quani P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령기 경계선 지능아동의 학교에 대한 태도유형은 '참여적-의존형'과 '방관적-위축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에 대한 태도는 아동의 자존감 및 가족 지지환경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소속감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교육복지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경계선 지능아동의 학교에 대한 주관적 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아동이 초등교육을 통해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 권리와 학습의 질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교육중재 방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 중심어 : | 경계선 지능 아동 | Q분석 | 학교에 대한 태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subjective cognition-patterns of school aged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function to the School using Q Methodology. Q-sample was included 21 statements obtained from literatur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4 specialist & 4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function. P-sample was consisted through the consent of 18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function and their parents. The 21 selected Q-statements were classified into a normal distribution using a 5 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analyzed using a Quani PC program. This study found out two subjective cognition-patterns of school aged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function to the school. Two types were 'participatory & dependent type', and 'onlooking & atrophic type'. This research finding can be used to make clear understanding on diverse voices of school aged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function to the School. And this result will attribute to mediations of educational welfare practice for maintaining a safe & healthy learning environment.

■ keyword : | School Aged Children with Borderline Intelligence Function | Q-Methodology | Attitude to the School |

* 본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7253)

접수일자 : 2017년 01월 12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2월 09일

수정일자 : 2017년 02월 06일

교신저자 : 이금진, e-mail : lkj626@hanmail.net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교육복지적 지원을 제28조에 명확히 하는 등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지적 기능이 IQ 71에서 84사이로 지적장애 아동은 아니지만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V)'에서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으로 분류되어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아동이다[1].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령기 전까지 잘 드러나지 않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동의 상대적으로 제한된 인지능력은 학령기에 접어든 이들의 학업과업과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초등학교를 지나 중등교육과정에 진입을 하게 되면 사회적응력이 전반적으로 성장보다 퇴보하게 되어 다양한 비행환경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2][3]. 이에 학령기에 접어든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개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선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이해가 아직까지 부족하며 이에 따른 지원상황도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쟁적인 교육문화는 경계선 지능 아동의 전반적인 사회화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도는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 부담이 너무 클 때(20.8%)',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20.8%)', '성적 압박이 심할 때(15.6%)'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 이렇게 '성적'이외의 것이 교육현장에 들어설 자리가 없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학령기에 접어든 경계선 지능 아동은 주요 과업인 '학습' 상황에 더욱 내몰리게 되고, 서열화의 끝에서 전혀 관심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학령기 아동에게 학업은 단지 학업만의 문제가 아닌 또래관계에서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나타나고 좌절과 자존감 상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5].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이해받기보다는 강압적인 훈육이 이어질 경향이 많아서 사회적인 위축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고 하였다[6].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의 언어능력, 읽기능력 등 인지능력의 제한이 상위 연령에 따라 저하된다는 연구들이 있으며[6][7],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정서·사회적 문제에 많이 노출된다는 연구[8][9]와 이로인해 전반적인 정신건강의 문제에 출현 빈도가 높다는 실태조사가 해외에서 진행되었다[10]. 이러한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한 연구들은 양적으로도 매우 제한되고 연구내용에 있어 아동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가족기능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11], 사회환경적 차원에서 가족의 지지체계에 따라 경계선 지능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12]가 있지만, 아직까지 선행연구들은 교사, 부모, 연구자의 시각에서 아동 개인의 변화를 위한 임상적 개입에 매우 제한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계선 지능 아동이 주로 드러나는 환경적 맥락(context)이 '학교'라는 점에 주목하여 아동 스스로의 시각에서 학교상호작용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령기의 경계선 지능 아동은 학교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학교문화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 기능주의 시각에서 학교는 기존 사회가치를 내면화해주는 사회화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개발해 주는 기능을 하는 반면[13], 갈등주의적 시각에서 학교는 강자와 약자를 체화시키고 운명에 체념하도록 훈련하는 기제로 본다. 즉, 학교는 일탈학생과 불량아, 낙오자를 생산해내는 체제로써 학교에서 가르치는 형식적·표면적 교육과정보다 문화적·사회적으로 교육되는 잠재적 교육과정, 숨겨진 교육과정이 이들을 학교부적응자로 만든다고 보았다[14]. 이렇게 개인이 갖는 상황에 대한 인식은 나머지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한다고 볼 때[15],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교경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 자신의 대처와 적응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경계선 지능 아동이 경험하는 학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여, 이들 아동에 대한 학교에 대한 태도 즉, 학교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적 지향에 대한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교관리자들의 이해를 높여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경계선 지능아동에 대

한 학교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 대하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고자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교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은 어떻게 나뉘며 각 유형의 특성은 무엇인가?”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하여서는 인간의 본질과 사회현상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현실은 의미적으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의미의 해석을 통한 이해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시 한다. 이에 외부에서의 설명이 아닌 내부에서의 이해를 중요시 하는 접근방법으로 연구자의 가정이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주관적 해석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15][16].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교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Q방법론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Q방법론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의 개인적 특성과 경험적 맥락에 따라 학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아동 스스로의 언어로 자신을 드러내고 결정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 대한 어떤 정의나 개념을 미리 가정하지 않는 대신 학령기 경계선 지능아동들(조사대상자)이 진술문을 분류하는 행동을 통해 아동들의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자, 부모, 교사의 관점이 아닌 아동들이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한 태도와 신념, 가치를 이해하고, 이들의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교육복지현장에서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표본의 추출방법

2.1 Q표본 구성 및 선정

Q모집단을 표집하기 위해 심층면접과 관련문헌을 분석하여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첫째, 심층면접을 통한 Q

모집단 표집을 위해 아동복지관련 교수 1인, 경계선 지능 아동 현장전문가 2인, 심리치료센터 1인 등 4명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계선 지능아동 4명을 대상으로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주제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은 다음과 같다.

- Q1. 경계선 지능 아동에게 학교란 어떤 의미인가?
- Q2. 학교에 다니면서 중요한 사람들(선생님, 친구, 가족, 형제 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 Q3. 학교가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
- Q4.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 Q5. 학교가 가장 좋게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
- Q6. 학교가 가장 우울하게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
- Q7.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는 언제인가?
- Q8. 가장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는 언제인가?

둘째, 경계선 지능 아동, 학교부적응 학생과 관련된 정신보건, 사회복지, 심리학, 교육학, 장애인복지학 서적과 관련 선행연구에서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나온 진술문 83개, 문헌고찰을 통해 추출된 진술문 118개를 선정하여 총 201개의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셋째, Q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체 201개의 모집단 문항을 놓고 의미가 중복되는 것을 배제화하여 범주화하였고, 학교수업활동, 동기, 관계, 정서의 대범주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질문문항을 분류하였고, 이를 Q방법론 전문가 1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약 21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2.2 P 표본

Q방법론은 양적 연구와는 달리 사람이 변인이 되어 P표본이 커지면 하나의 인자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표본 이론에 근거한다[9]. 이에 서울 A지역에서 경계선 지능아동 교육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40명의 학생 중 본 연구에 본인과 부모님이 동의한 1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여 P표본을 선정하였다. 총 18명 중 남학생은 8명(44.4%), 여학생은 10명(55.6%)이며, 학년별로는 3학년 5명(27.8%), 4학년 7명(38.9%), 5학년 4명(22.2%), 6학년 2명(11.1%)이 포함되었다.

3.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3.1 Q표본의 분류와 방법

21개의 Q표본 분류를 위하여 대상자의 부모와 아동이 방과 후 일정을 조정된 후 경계선 지능아동이 있는 학교의 교육복지실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를 소개하고 사전의 참여의사를 부모와 아동에게 확인받은 것을 바탕으로 본인(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재확인 받는 동의과정을 거쳤으며, 본 연구는 한양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AN01-201404-HR-001-01)를 받아 수행하였다.

Q분류 절차는 먼저 대상자의 학년, 성별, 양육 상황 및 자존감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를 먼저 작성한 이후 Q카드를 나눠주어 진술문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찬성, 중립, 반대의 3그룹으로 크게 나누어 찬성하는 진술문들은 오른쪽에, 중립적이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진술문들은 중간에, 반대하는 진술문들은 왼쪽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자존감 척도는 Coopersmith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참고하여 국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개발한 최보가·전귀연의 자존감척도 활용하였다[17].

Q분류카드를 아동들이 읽기 쉽게 두꺼운 종이에 큰 글자로 인쇄하여 준비하였으며 각 카드에 1번부터 21번까지 번호를 주고 Q분포도의 중요도에 따라 강한 긍정(+)-부터 강한 부정(-)까지 5점 척도 상에 강제 정규 분포 시키는 원리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였다. Q분류가 끝난 직후 유형별 해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양극단에 놓인 진술문에 대한 선택이유를 질문하여 녹취하였다. 아동별 표본분류의 시간은 집중정도를 감안하여 약 45분에서 60분 정도의 시간을 배려하였다.

3.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P표본으로 표집된 18명에 대한 자료수집이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2)'을 1점으로 시작하여 '가장 동의하는 것(+2)'에 5점을 부여하여 코딩하였고, 자료 분석은 Quanl PC Program을 사용하였다. Q요인분석은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활용하였고, 가장 이상적인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Eigen(아이겐) 값 1.0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을 추출하였다. 요인의 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 중 변량과 누적변량,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Q요인이라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학교경험에 대한 대상자 유형

본 요인분석의 결과 연구대상자의 학교경험에 대한 태도 유형은 2가지로 분류되었다. 요인별 설명력은 요인 I 은 24.14%, 요인 II는 13.87%로 전체 요인설명력은 38.01%였다[표 1]. 일반적으로 총 변량이 25.0%이면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두 유형간의 상관관계(R=0.305)는 낮아서 각기 고유한 유형으로 판단된다[표 2].

표 1. 유형별 Eigen value와 설명변량

유형	유형 I	유형 II
Eigen값	3.3443	2.4969
설명변량(%)	24.17	13.87
부하인원	7	11

표 2. 유형간 상관관계

유형	유형 I	유형II
유형 I	1.000	0.305
유형 II	0.305	1.000

연구대상 P표본 중 유형 I에는 8명, 유형 II에는 10명이 포함되었으며 각 유형 내에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표본이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Prototype) 혹은 이상적인 대상자로 그 유형을 대표함을 의미한다[표 3].

표 3. 연구참여자의 인자가중치 및 일반적 특성

유형	P 번호	가중치	성별	학년(연령)	자존감		양육 상황
					개인	유형 평균	
I 유형	1	1.6580	남	초3(10)	115	95.3	부모
	3	1.9143	여	초4(11)	101		부모
	4	3.3510	여	초4(11)	83		부모

II 유형	6	0.3639	남	초4(11)	75	85.8	부모
	10	0.8322	여	초4(11)	96		부모
	15	0.3514	남	초4(11)	81		부모
	17	0.7983	여	초6(12)	75		부모
	18	0.8698	남	초3(10)	136		부모
	2	0.5278	여	초5(12)	91		부모
	5	0.7991	남	초6(13)	70		한부모
	7	0.4085	여	초5(12)	69		한부모
	8	0.5073	여	초4(11)	99		한부모
	9	0.7999	여	초5(12)	116		부모
	11	0.3634	여	초3(10)	78		부모
	12	0.3692	남	초3(10)	74		부모
	13	0.4359	남	초3(10)	70		친척
	14	1.4992	남	초4(11)	75		한부모
	16	0.6848	여	초5(12)	116		부모

2. 학교에 대한 태도의 유형별 분석

학교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별로 분석, 기술하기 위해 각 대상자들의 긍정적, 부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유형별 차이를 상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개별진술항목에 대한 특성 유형의 표준 점수와 다른 유형의 표준 점수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함께 Q분류과정시 관찰 및 면담한 내용인 양극단의 의견과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1 유형 I: 참여적-의존형

유형 I에 속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18명 중 8명의 대상자가 이 유형에 속하며 남자 4명, 여자 4명이었고 초등학교 3학년 2명, 초등학교 4학년 5명, 초등학교 6학년 1명이었다. 자존감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유형 I의 자존감 평균은 95.3점으로 나타났고, 가정 내 양육형태는 아동의 부모가 모두 양육 중인 상황이었다[표 3].

유형 I이 표준점수 1이상 '강하게 동의'를 보인 항목은 '체육시간 등 신체활동이 많은 수업이 좋다(Z=2.19)',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님(조부모님 포함)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Z=1.31)', '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는 현장체험교육이 좋다(Z=1.17)', '또래친구에게 인정받고 어울리고 싶다(Z=1.16)'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님 혹은 친구가 시험성적을 물어볼까봐 싫다(Z=-1.46)',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발표하는 게 싫다(Z=-1.36)',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많아 따라가기 힘들다(Z=-1.22)', '수업시간 중 모둠활동 때 나는 참여하기가 힘들다(Z=-1.09)'의 진술문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유형의 긍정적, 부정적 대표진술문

Q진술문	표준 점수
10. 체육시간 등 신체활동이 많은 수업이 좋다	2.19
13. 학교생활에서 부모님(조부모님 포함)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1.31
5. 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는 현장체험교육이 좋다	1.17
16. 또래친구에게 인정받고 잘 어울리고 싶다	1.16
1. 수업시간 중 모둠활동 때 나는 참여하기 어렵다	-1.09
9.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많아서 따라가기 힘들다	-1.22
11.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발표하는 게 싫다	-1.36
12. 부모님 혹은 친구가 시험성적을 물어볼까봐 싫다	-1.46

유형 II이 유형 I에 비해 특히 높거나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을 살펴보았다. 우선 '동의하는 항목' 중 큰 차이를 나타낸 항목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님(조부모님 포함)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D=2.806)', '체육시간 등 신체활동이 많은 수업이 좋다(D=1.509)', '학교에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D=1.405)'로 나타났다. 둘째로 '동의하지 않는 항목' 중 큰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발표하는 게 싫다(D=-2.238)',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많아서 따라가기 힘들다(D=-1.568)',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어렵다(D=-1.479)',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하기 어려워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D=-1.390)', '또래 친구들이 새로운 게임이나 규칙이 복잡한 놀이를 하면 놀기가 싫다(D=-1.358)'로 나타났다[표 5].

표 5. 타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Q진술문	표준 점수	평균 점수	차이 (D)
13. 학교생활에서 부모님(조부모님 포함)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1.31	-1.49	2.80
10. 체육시간 등 신체활동이 많은 수업이 좋다	2.18	0.67	1.50
21. 학교에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0.77	-0.62	1.40

19. 또래친구들이 새로운 게임이나 규칙이 복잡한 놀이를 하면 놀기가 싫다	-0.69	0.66	-1.35
14.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워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0.19	1.19	-1.39
15.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어렵다	-0.63	0.84	-1.47
9.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많아서 따라가기 힘들다.	-1.22	0.34	-1.56
11.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발표하는 게 싫다	-1.36	0.87	-2.23

유형 I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자가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자 4명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또래친구에게 인정받고 잘 어울리고 싶다(16번)’, ‘체육시간 등 신체활동이 많은 수업이 좋다(10번)’로 나타났고, 가장 동의하지 않는 항목으로는 ‘학교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발표하는 게 싫다(11번)’, ‘부모님이나 친구가 성적을 물어볼까봐 싫다(12번)’ 이었다. 유형 I의 전형인 4번 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인 여학생으로 양육형태는 부모님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의한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 친구들이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였다. 1학년 때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몰라서 점심시간에도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고 혼자 앉아있었던 때와 3학년 때 왕따를 당하는 친구와 놀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왕따를 당하게 되었을 때 힘들었지만 다시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관계가 좋아졌던 경험이 있어서 속스럽지만 또래친구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앉아서 하는 수업보다 체육수업이 좋은 데 그 이유는 친구들과 함께 움직이며 놀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동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이유로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이 어려울 때 소심해지기도 하지만, 쉬운 질문을 할 때는 발표를 잘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님이 성적이 나빠도 혼내지 않고 괜찮다고 하셨고, 성적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적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2.2 유형 II:방관적-위축형

유형 II에 속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18명 중 10명의 대상자가 이 유형에 속하며 남자 4명, 여자 6명이었고 초등학교 3학년 3명, 초등학교 4학년 2명, 초등학교 5학년이 4명, 초등학교 6학년 1명이었다. 자존감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유형 I의 자존감 평균은 85.8점으로 나타났고, 가정 내 양육형태는 한쪽 부모 혹은 친척이 양육을 하고 있는 사례가 5명, 아동의 부모가 모두 양육 중인 사례가 5명으로 나타났다[표 3].

유형 II가 표준점수 1이상 강하게 동의를 보인 항목은 ‘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는 체험교육이 좋다(Z=1.48)’,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 중 점심시간이 제일 즐겁다(Z=1.42)’,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워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Z=1.19)’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님(조부모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Z=-1.49)’, ‘부모님이나 친구가 시험성적을 물어볼까봐 싫다(Z=-1.49)’, ‘수업시간 동안 교실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힘들다.(Z=-1.41)’, ‘수업시간 중 모둠활동 때 나는 참여하기가 힘들다(Z=-1.36)’, ‘학교에서 친구들이 따돌릴까봐 가기 싫을 때가 있다(Z=-1.22)’의 진술문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유형II의 긍정적, 부정적 대표진술문

Q진술문	표준점수
5. 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는 체험교육이 좋다	1.48
4.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 중 점심시간이 제일 즐겁다.	1.42
14.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워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1.19
17. 학교에서 친구들이 따돌릴까봐 가기 싫을 때가 있다	-1.22
1. 수업시간 중 모둠활동 때 나는 참여하기 어렵다	-1.36
2.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힘들다	-1.41
12. 부모님 혹은 친구가 시험성적을 물어볼까봐 싫다	-1.49
13.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님(조부모님)이 도와주면 좋겠다.	-1.49

유형 II가 유형 I에 비해 특히 높거나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을 살펴보면 유형 II가 동의하는 항목 중 큰 차이를 나타낸 항목으로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발표하는 게 싫다(D=2.238)’,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많아서 따라가기 힘들다(D=1.568)’,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어렵다(D=1.479)’,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하기 어려워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D=1.390)’, ‘또

래 친구들이 새로운 게임이나 규칙이 복잡한 놀이를 하면 놀기가 싫다(D=1.358)'로 나타났다.

유형 II가 동의하지 않는 항목 중 큰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님(조부모님 포함)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D=-2.806)', '체육시간 등 신체활동이 많은 수업이 좋다(D=-1.509)', '학교에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D=-1.405)'로 나타났다.

표 7. 타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Q진술문	표준 점수	평균 점수	차이 (D)
11.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거나 발표하는 게 싫다	0.87	-1.36	2.23
9.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 많아서 따라가기 힘들다.	0.34	-1.22	1.56
15. 선생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어렵다	0.84	-0.63	1.47
14.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워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1.19	-0.19	1.39
19.또래친구들이 새로운 게임이나 규칙이 복잡한 놀이를 하면 놀기가 싫다	0.66	-0.69	1.35
21. 학교에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0.62	0.77	-1.40
10. 체육시간 등 신체활동이 많은 수업이 좋다	0.67	2.18	-1.50
13. 학교생활에서 부모님(조부모님 포함)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1.49	1.31	-2.80

유형 II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 자가중치가 높은 연구대상자 14명이 가장 동의를 보인 항목을 보면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 중 점심시간이 제일 즐겁다', '학교 외부로 나가는 체험교육이 좋다'로 나타났다, 가장 동의하지 않는 항목으로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성적을 물어볼까봐 싫다',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님(조부모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었다. 유형II의 전형인 14번 대상자는 초등학교 4학년인 남학생으로 양육형태는 한부모님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의한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점심시간이 제일 즐거운 이유는 밥을 먹는 게 즐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학교 외부로 나가면 멀리 뛰어다니며 놀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동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이유로는 친구도 물어볼 리가 없고, 부모님도 성적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으니 신경 쓰이지 않고 혼내지도 않으시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모님이 도움을 주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것은 그냥 현재처럼 본인의 공부에 물어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라고 하였다.

2.3 유형간 합의진술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교경험에 대하여 유형별로 합의된 진술문은 [표 8]과 같다. 진술문 5, 4, 3, 16, 8의 5개 항목은 동의하는 영역에서 견해가 일치하였다. 진술문 2, 1, 12의 3개 문항은 동의하지 않는 영역에서 견해가 일치하였다. 합의된 항목 중 가장 동의한 진술문은 '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는 현장체험 교육이 좋다(진술문 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개념전달형 수업방식보다 체험형 수업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유형 모두 '부모님 혹은 친구가 성적을 물어볼까봐 싫다(진술문 12)'는 동의하지 않는 항목에서 가장 견해가 일치하였다. 즉 학습 및 학습의 결과인 성적에 대한 경쟁적인 상황에서 빠져나와 있어 학습에 대한 상대적 비교에 오히려 민감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내었다.

표 8. 유형간 합의진술문

Q진술문	표준 점수
5. 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는 현장체험교육이 좋다	1.33
4.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 중 점심시간이 제일 즐겁다	1.17
3.학교 쉬는 시간은 너무 짧아 아쉽다.	0.86
16.또래친구에게 인정받고 잘 어울리고 싶다	0.80
8.시청각 교육도구를 활용하는 수업이 이해가 쉽다	0.63
2.학교 수업시간 동안 교실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힘들다	-1.08
1.수업시간 중 모둠활동 때 나는 참여하기 어렵다	-1.22
12.부모님 혹은 친구가 시험성적을 물어볼까봐 싫다	-1.48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유형화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교육 상황에 맞추어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수행되었다.

Q방법론을 활용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 I유형은 “참여적-의존형”으로 또래친구와 교사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부모님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학교생활에 잘 참여하고자 하는 유형이었다. 이 유형은 학교수업 맥락에서 모둠활동 참여, 교사의 질문에 대한 응답 및 발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본인의 참여를 늘일 수 있는 체육시간 등 신체활동이 많은 수업을 선호하였다. 수업내용을 따라가는 데 힘들지 않다고 인지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참여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심리사회적으로 두드러진 특성은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해 부모님의 도움을 추구하는 의존적 태도를 보이며, 선생님과 관계는 어려워하지 않으나 또래친구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가 컸다.

P표본과의 관계에서 제 I유형에 속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자존감 평균(M=95.3점)은 II유형보다 약 10점정도 높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양육 상황은 양쪽 부모님이 모두 양육하고 있는 대상자가 귀속되었다. 즉, 경계선 아동 중 상대적으로 자존감 수준이 높고 가정 내 양육 환경이 보호적인 지지체계를 갖춘 경우, 정서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고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학교에 기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부모님 및 가족의 도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태도유형은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의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응력 부족으로 인해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2배 정도 많이 나타낸다고 한 논의[9]와는 차이를 보이며, 가족 지지체계와 자존감의 양상에 따라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연관이 있다[12].

그러므로 I 유형은 선생님과 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또래친구와의 관계를 추구하는 발달과업을 나타내고 있는 등 학교생활에 부모의 도움에 의존해서라도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들의 욕구에 맞는 학습시간배정 및 학습방법 구체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조정과 또래집단내 인정획득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에 기능적으로 적

응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서적인 자기표현이 가능한 유형이나 학교에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 관계 중 또래관계에 소속되고자 하는 열망이 커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유형이었다.

제 II유형은 “방관적-위축형”으로 부모님이나 가족의 도움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교사와의 관계를 어려워하여 학교생활에서 수업내용을 몰라도 질문하지 않는 등 단지 수업에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고만 있는 방관적 태도의 유형이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 및 발표가 싫고 수업내용이 많아 따라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등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학교외부로 나가는 체험교육을 좋아하고, 점심시간을 즐거워하는 등 학교에는 방관적이라도 연결되어 있길 원하는 태도를 보였다. 심리사회적으로는 교사와의 대화가 어렵고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감의 욕구도 제한되었으며 부모님의 도움도 원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정서적 위축을 나타내었다.

유형 II와 P표본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자존감의 평균(M=85.8점)이 유형 I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가족의 양육 상황이 50%가 한부모 가족에서 양육되고 있어 유형 I 보다 제한적인 가족환경변수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형II는 학교에 대해 수업활동이나 또래친구와의 관계에도 큰 관심이 없으며 선생님과 관계도 어렵고 이에 대해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등의 도움도 원하지 않고 있었다. 즉 선생님과 관계, 부모님과 관계에서 도움을 추구하지 않으며, 또래친구와의 관계를 추구하는 발달과업도 나타나지 않고, 학교수업에는 구경꾼과 같은 방관적인 참여형태를 보이고 감정표현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태도유형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경우 불안정한 자기존중감과 대인관계에서의 철회를 나타내게 되며 점점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화시키며,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8]는 연구결과와 연관 지어지며, 이로 인한 무기력감과 우울감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하게 된다[10]는 점에서 개입이 필요한 유형이다.

그러므로 유형 II는 가족 지지체계가 약한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아 심한 정서적 위축이 특징적인 유형으로 전반적인 자기표현을 늘리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놀 수 있는 친숙한 공간의 안전함, 일관적이고 예측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가족과 교사의 응대, 학교와 가정에서의 즐거운 경험이 심리적 상담과 함께 지원될 필요가 있다[18].

이상의 유형분석을 통해 학령기 경계선 아동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시스템의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수업시간 및 쉬는 시간 등 여유 있는 수업운영이 필요하고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한 수준별 교육과정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경계선 지능아동의 학습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계선 지능아동이 선호하는 수업방식을 참고하여 개념전달교육형보다는 체험형, 관찰형 수업 등 수업방식을 보다 구체적인 배움이 가능하도록 다양화된 학습방법의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학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또래간의 관계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개입을 할 수 있는 사회기술훈련, 연극동아리 등 비교과 수업의 확대와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유형별로는 I 유형의 경우 학교에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본인의 의지를 지원하기 위한 학습코칭과 관련된 프로그램지원이 우선하여 필요하고, 감정조절과 관련된 사회기술훈련의 지원이 필요하다. II 유형의 경우 정서적 위축상황에 대한 일차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가족지지체계를 강화할 있는 지역사회 지지체계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함의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아동의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다차원적인 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를 Q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뚜렷이 구분되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거부적인 태도를 지닌 것이 아니라 심리적 상황 및 가족지지체계에 따라서 참여적으로든 방관적으로든 학교와 연결되어 있고자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 결과를 기초로 추후 경계선 지능 아

동의 교육복지적 지원에서 이들의 주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뤄질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들의 지원을 위해서 제도적 지원 마련과 이들의 일차적 보호를 맡고 있는 가족과 보호자의 적절한 돌봄이 중요함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첫째, Q분석은 소표본 이론에 근거하나 향후에는 보다 많은 경계선 지능 아동대상이 연구참여자로 포함되어 개입을 위한 분석유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경계선 아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되어 이들의 Q표본 조사를 위한 문헌분석에서 경계선 지능아동과 관련된 문헌과 함께 학교부적응 학생과 관련된 문헌도 함께 포함되어 문항구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관련하여 경계선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셋째, 경계선 지능아동의 가족환경과 관련된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보다 실증적인 방법의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DSM-IV)*, 서울 : 하나의학사, 1995.
- [2] J. A. Ahrens, R. G. Evans, and R. W. Barnett, "Factors Related to Dropping Out of School in an Incarcerated Popul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50, pp.611-617, 1990.
- [3] S. R. Shaw, "The evolution of interest in slow learners: Can we continue to ignore?," *NASP Communique*, Vol.28, No.31, 1999.
- [4] 한겨레,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6년째 OECD 꼴찌". 2014, 5. 30,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9987.html)
- [5] 김준경, "학습부적응의 원인과 예방책 및 놀이치료에 관한 심리학적 고찰," *놀이치료연구*, 제2권,

- 제1호, pp.13-31, 1998.
- [6] 정희정, 이재연,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 특수교육학 연구, 제42권, 제4호, pp.43-66, 2008.
- [7] T. P. Alloway, "Working Memory and Executive Function Profiles of Individual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Vol.54, pp.448-456, 2010.
- [8] G. Masi, M. Marcheschi, and P. Pfanner, "Adolesc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 Psycho-pathological Risk," *Adolescence*, No.33, pp.416-427, 1998.
- [9] S. T. Deb and M. S. Bright, "Mental Disorder in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 Prevalence of Functional Psychiatric Illness among a Community-based Population Aged between 16~64 Year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No.45, pp.495-505, 2001
- [10] A. Hassiotis, M. Tanzarella, P. Bebbington, and C. Cooper,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Suicidal Behaviour in a Sample of Adults with Estimated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 Results from a Population Surve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129, No.3, pp.380-384, 2011.
- [11] 권수정, 이현주, "가족기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pp.188-195, 2015.
- [12] G. R. Patterson, H. D. DeBaryshe, and E. Ramse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ur," *American Psychologist*, No.44, pp.329-335, 1989.
- [13] 김영춘, "또래애착,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도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9호, pp.321-331, 2014.
- [14] 김민, *학교실패 현상에 대한 문화론적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15] 김현수, 원유미, *Q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0.
- [16] 강다영, 심형화, "노인의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Q방법론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2호, pp.355-369, 2015.
- [17] 최보가, 전귀연, "자아존중감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제2호, pp.41-54, 1993.
- [18] G. R. Lokanadha, R. Ramar, and A. Kusuma, *Slow Learners: Their Psychology and Instruction*, Discovery Publishing House, 박현숙 역, *느린 학습자의 심리와 교육*, 서울: 학지사, 2013.

저자 소개

이금진(Keum-Jin Lee)

정희원



- 200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0년 11월 ~ 2008년 2월 : 노동부산하 고용개발원 조사연구팀장
- 2008년 3월 ~ 2017년 현재 : 한양여자대학교 아동보육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정신보건, 장애인복지